

조선대, 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학생 400명에 '장학금'

전체 장학금 2억원 마련... 경제적 곤란 완화·주거지원 '특특'

조선대학교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학생 400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

이번 장학금은 매년 조선대학교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재학생들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급하는 Pride CU 청송특별장학사업의 일환이다.

조선대학교는 이번 청송장학생 기준 선

발기준에 코로나19와 관련된 기준을 확대했으며, 전체 장학금액도 기존보다 4000만 원 증액된 2억원이 책정됐다.

청송장학생1 유형은 경제사정 곤란자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실직이나 폐업을 당하여 가정경제가 급격하게 어려워진 재학생 등에 지원됐다. 학생 200명이 선발됐으며 50만원의 장학금이 수여됐다.

청송장학생2 유형은 코로나19 주거 긴급 지원으로, 온라인 수업 기간임에도 대학 주변 원룸 등 임대 주거지에서 생활해야 하는 타지역 재학생 200명에 50만원씩 지급됐다.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들은 이번 장학금 지급이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상황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청송장학생2 유형으로 선발된 3학년 고모(23·여) 학생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온라인 강의를 결정되기 이전에 1년 단위로 원룸을 계약해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했다"면서 "실상가상으로 1년 남게 아르바이트를 하던 가게에서도 코로나19 때문에 경기가 안 좋으니 그만 나와달라고 했다"고 털어놴.

이어 "생활비는 없는데 월세는 나가는 상황이라 지금 사정이 당장 어려웠는데, 마침 청송장학생으로 선발되어 한숨 돌릴 수 있었다"고 회상했다.

조선대학교는 차후 교수평의회가 자발적인 성금 모금으로 마련한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학생들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갈 예정이다. 민영돈 총장은 "조선대학교는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학생들의 마음을 공감하고 있으며, 다각적인 지원책을 확대하여 애로 사항을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민정 기자



전라남도교육청 온라인수업 혁신방안 마련을 위한 TF회의 사진

전남교육청, 초등 온라인 수업혁신안 마련 박차

"학생과 교사가 함께 성장하는 온라인 수업 실현" TF 교원협의회 갖고 창의적 온라인 수업안 모색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이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시작된 온라인 수업을 혁신해 학생의 학습결손을 막고 교사의 성장을 지원하는 데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전라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6월 23일 도교육청에서 열린 '2020. 전남교육 희망포럼'을 통해 온라인 수업의 문제점과 앞으로 나아가 할 방향 등이 현안으로 대두됐다.

특히, 이날 포럼에서 이혁제 전남도원은 원격수업에서 2015개정교육과정의 핵심역량 중 '지식정보처리역량'에 국한된 교육서비스만을 제공한 아쉬움을 지적하며, "코로나 이후 부각될 블렌디드 수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치밀한 연구와 토의를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도교육청 유초등교육과는 6월 26일(금)~27일(토) 목포상그리아호텔에서 온라인 수업혁신안 준비 TF 교원들과 전문가인 광주교육대학교 박남기 교수, 광주마지초 김항 교사가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갖는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진행중인 온라인 수업을 진단하고 도출된 문제점에 따른 해결 방안과 제안 사항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게 된다.

특히, 온라인 교육이 나아가 방향과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력 신장, 기초학력 정착, 창의적인 온라인 수업 활성화를 주제로 토의·토론을 거친 후 온라인 수업혁신안의 방향을 수립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이를 바탕으로 온라인 수업 개념 및 수업혁신 방향을 정립하고 프로젝트 수업, 플립러닝 수업, 게임 수업, 토의·토론 수업 등 다양한 수업 적용 사례와 출결, 평가 등 현장에 도움이 될 구체적 내용을 담아 책자로 낼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코로나-19 국면 속에서 진행한 온라인 수업의 장점으로 교직원들의 집단지성과 협력적 문화가 형성, 창의적인 온라인 수업 방식을 운영하기 위한 노력 등을 꼽고 있다.

정중혁 유초등교육과장은 "그러나 교육과정 운영, 수업 준비, 출결과 평가 업무의 과중 및 학습결손 발생 우려 등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면서 "온라인 수업혁신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학교교육의 완성도를 높여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순천효산고-조선이공대 창업인재육성 MOU

조리&창업 융합교육으로 새로운 블루오션 기대

순천효산고(교장 최상경)는 6월 26일(금)에 조선이공대 프랜차이즈창업과와 지역창업인재 육성을 위한 고교-대학간의 상호업무협약을 추진하고 일학습병행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노력을 약속했다.

순천효산고는 학과제구조화를 통해 관광조리과에 '프랜차이즈창업코스제'를 교육부로부터 인가를 받아 올해 신입생부터 교육과정에 본격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이는 조리과 학생들이 졸업후 창업을 꿈꾸는 학생들이 적지 않아 성공창업을 위한 마인드와 실무능력을 키워 향후 조리외식 CEO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해 주교자 교육과정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킨 사례여서 학생과 학부모의 관심을 이끌어 내며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금융사무행정 명문학교로서의 위상을 떨치고 있는 교육력을 조리교육과 융합함으로써 직업교육의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사말에서 최상경 교장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아 온라인시장이 더욱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조리외식 창업 인재육성을 위한 유튜브 양성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며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은 전남교육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다.

동부취재본부 김택연 기자

나주교육지원청 공간혁신 벽화그리기

30일까지 영강초, 노안남초, 남평중, 영산포여중 대상

나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길)은 6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영강초, 노안남초, 남평중, 영산포여중을 대상으로 방과 후 수업과 주말 토요프로그램 시간을 활용하여 아름다운 학교 벽화 그리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나주교육지원청과 사학연금공단은 지난 5월 26일 교육환경 발전을 위하여 업무협약을 맺고, 지역 학생자치회와 함께하는 교육사업의 일환으로 학생들이 참여하고 함께할 수 있는 사업을 공모하였다. 그 결과 학교 벽화 그리기가 선정되어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번 벽화 그리기는 지역사회 연계 사업으로, 나주연합 학생회가 주도하여 지역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전문작가를 초빙하였으며 학생, 나주교육지원청, 사학연금공단이 함께 벽화의 주제를 정하고, 그림 구상, 그리기 작업까지 함께하여

학생들이 학교 공간의 주체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한 의미있는 사업이다.

노안남초 5학년 신효주 학생은 "학교 안의 미처했던 벽면에 내가 상상했던 바닷속 세상을 직접 스케치하고 채색하면서 작품이 완성되어가는 모습을 보니 신기했고, 내가 좋아하는 그림이 있는 학교가 너무 좋아졌다."고 말했다.

김영길 교육장은 "앞으로도 많은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학교를 변화시킬 수 있는 공간을 더 많이 찾아내 학교 공간혁신을 이뤄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나주학교지원센터는 벽화 그리기 사업 외에도 7월에는 안전우산을 제작해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에게 배부할 예정이며, 유관기관과 함께 관내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교통안전 교육 및 안전의 날 선포식 행사도 계획하고 있다.

